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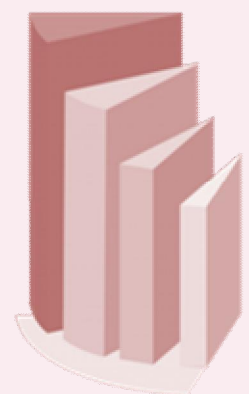
제 1 차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04.15)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붙임1. 질문지





CONTENTS

제 1 장.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1
II. 주요 조사 항목	2
III. 표본의 특성	3
IV. 가중값 배율	4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7
1.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7
2.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8
3. 투표 후보 선택 관련	8
4. 선거 공명도 평가	9
5.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9
6. 투표 효능감	10
7. 선거관리위원회 평가	10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1
1.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11
2. 투표 의향 없는 이유	12
3.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13
4.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14
5.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15
6. 비례대표의원 선거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16



CONTENTS

7.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성 평가 / 공평성 부정 평가 이유	17
8.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18
9. 정치 후원금 기부 의향	20
10. 투표 효능감	21
11.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22
12.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23

붙임1. 질문지

PART 1

조사 개요



제 1 장 | 조사 개요

I 조사의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조사 규모 ▶ 총 1,505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조사 방법 ▶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프레임 ▶ 무선전화 RDD(84.7%) + 유선전화 RDD(15.3%)

응답률 ▶ 15.0%(무선전화 18.0%, 유선전화 7.9%)

조사 기간 ▶ 2020년 3월 23일(월) ~ 24일(화) (총 2일간)

조사 의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II 주요 조사 항목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 선거 관심도
- ▶ 투표 의향
- ▶ 투표 미참여 이유
- ▶ 투표 예정일
- ▶ 사전투표 이유
- ▶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 ▶ 지지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 후보자 정보 획득 경로

선관위 활동 평가

- ▶ 선관위 활동 평가
- ▶ 선관위 역점 과제

선거 분위기 및 불법선거운동

- ▶ 선거과정 공명성 평가
- ▶ 공명성 부정평가 이유

정치 및 선거참여 인식

- ▶ 투표 효능감
 - 선거를 통한 국가 미래 결정
 - 선거를 통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결정
 - 선거에서 내 한표의 중요성

선거 관련 제도 인식

- ▶ 1인 2표제 인지도
- ▶ 선거권연령하향(19세→18세) 인지도
-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지도
-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방식 인지도
- ▶ 선거범죄 관련 제도 인지도
- ▶ 후보자 정치후원금 기부 의향

Ⅲ 표본의 특성

구분		계	
		사례수	%
전체		1,500	100.0
성별	남자	743	49.5
	여자	757	50.5
연령별	18~29세	272	18.1
	30대	241	16.1
	40대	286	19.1
	50대	295	19.7
	60대	217	14.5
	70세 이상	189	12.6
권역별	서울	290	19.3
	인천/경기	462	30.8
	대전/세종/충청	159	10.6
	광주/전라	148	9.9
	대구/경북	147	9.8
	부산/울산/경남	230	15.3
	강원/제주	64	4.3
직업별	화이트칼라	516	34.4
	블루칼라	134	8.9
	자영업	236	15.7
	가정주부	295	19.7
	학생	120	8.0
	농임어업	32	2.1
	무직/기타/무응답	167	11.1
학력별	중졸 이하	182	12.2
	고졸	407	27.1
	대재 이상	900	60.0
	모름/무응답	11	0.7
소득별	200만원 이하	313	20.9
	201-500만원 이하	626	41.8
	501만원 이상	397	26.5
	모름/무응답	164	10.9



IV 가중값 배율

구분		조사완료[A]		목표할당[B]		가중값 배율[B/A]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505	100.0	1,500	100.0	1.00
성별	남자	776	51.6	743	49.5	0.96
	여자	729	48.4	757	50.5	1.04
연령별	18~29세	220	14.6	272	18.1	1.24
	30대	201	13.4	241	16.1	1.20
	40대	337	22.4	286	19.1	0.85
	50대	346	23.0	295	19.7	0.85
	60대	243	16.1	217	14.5	0.89
	70세 이상	158	10.5	189	12.6	1.20
지역별	서울	325	21.6	290	19.3	0.89
	부산	102	6.8	105	7.0	1.03
	대구	68	4.5	70	4.6	1.02
	인천	88	5.8	92	6.1	1.04
	광주	42	2.8	44	3.0	1.06
	대전	43	2.9	45	3.0	1.06
	울산	30	2.0	29	1.9	0.97
	세종	6	0.4	6	0.4	0.95
	경기	365	24.3	370	24.7	1.02
	강원	43	2.9	48	3.2	1.13
	충북	42	2.8	43	2.8	1.01
	충남	62	4.1	65	4.3	1.05
	전북	53	3.5	55	3.6	1.03
	전남	50	3.3	49	3.3	0.98
	경북	77	5.1	77	5.2	1.01
	경남	94	6.2	96	6.4	1.02
제주	15	1.0	16	1.0	1.04	

PART 2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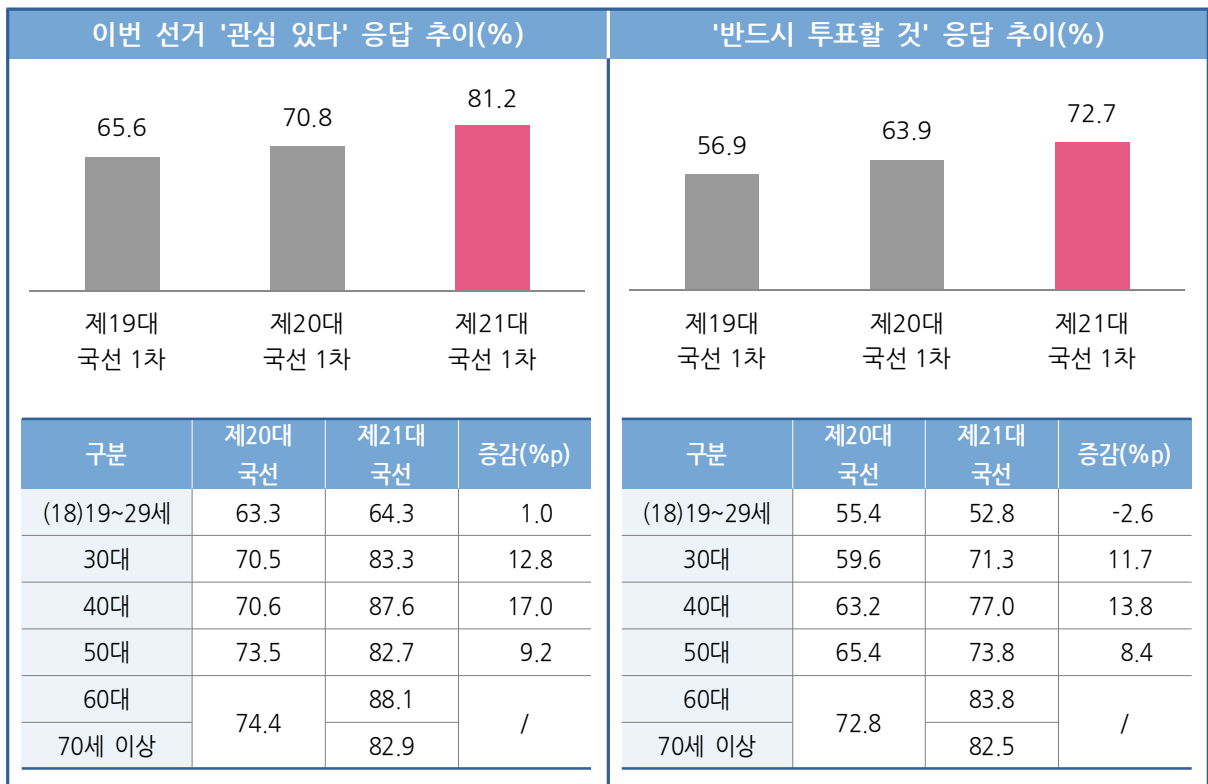


제 2 장 | 조사 결과 요약

I 조사 결과 총괄 요약

1.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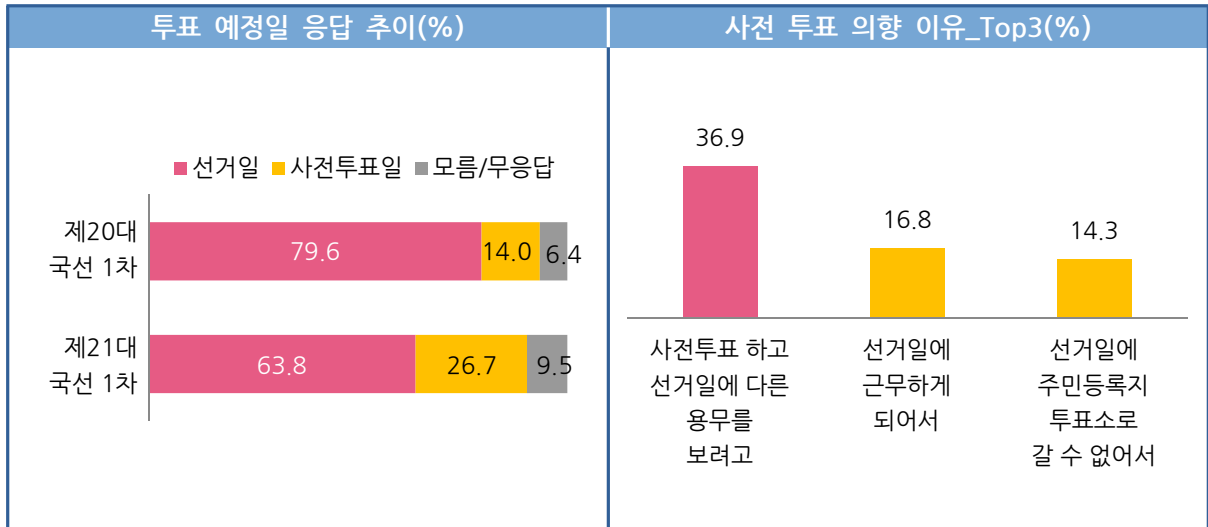
- ▶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 있다' 81.2%, '반드시 투표할 것' 72.7%
 - 40대의 관심도와 투표의향 증가 두드러지나, 18~29세는 직전 선거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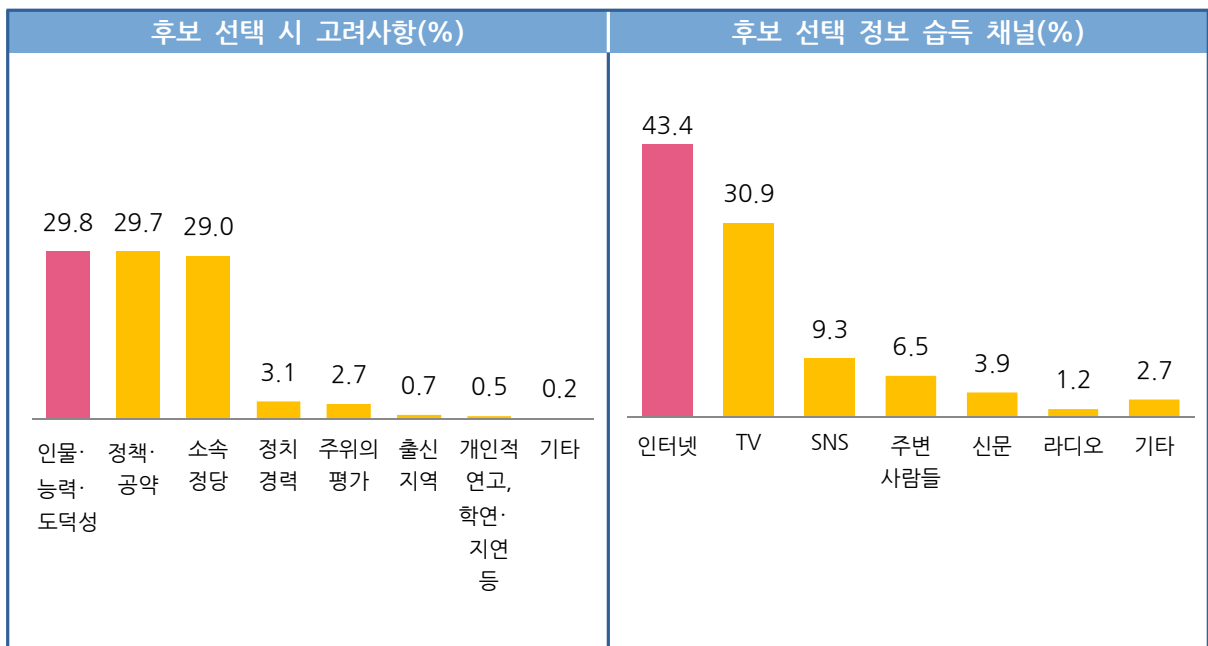
2.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 ▶ 선거일 투표 63.8%, 사전 투표 26.7%
 - 사전 투표 의향 20대 국선 대비 12.7%포인트 증가
 - 사전 투표 의향은 18~29세(36.0%), 30대(32.2%)가 40~60대(25% 내외)보다 높음
- ▶ '선거일에 다른 용무 보기 위해 사전 투표'(36.9%), 사전 투표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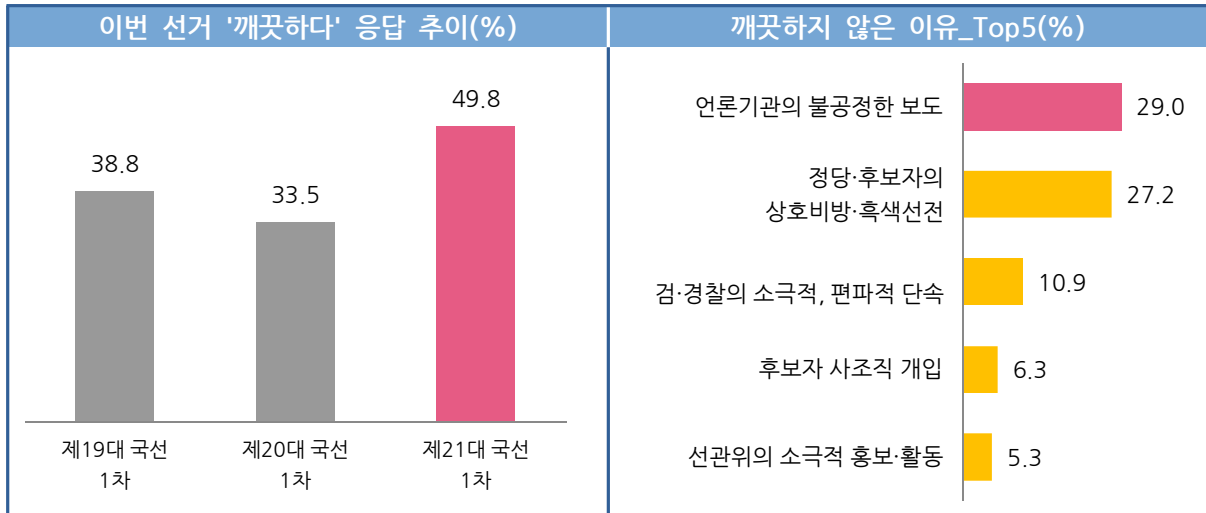
3. 투표 후보 선택 관련

- ▶ 지역구 투표 후보 선택 시 '인물·능력·도덕성' '정책·공약' '소속 정당' 29%대로 비슷
- ▶ 후보자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 '인터넷'(43.4%)이 'TV'(30.9%)보다 많아
 - 이전 국선 대비 인터넷/SNS 증가, TV/신문/라디오 등의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응답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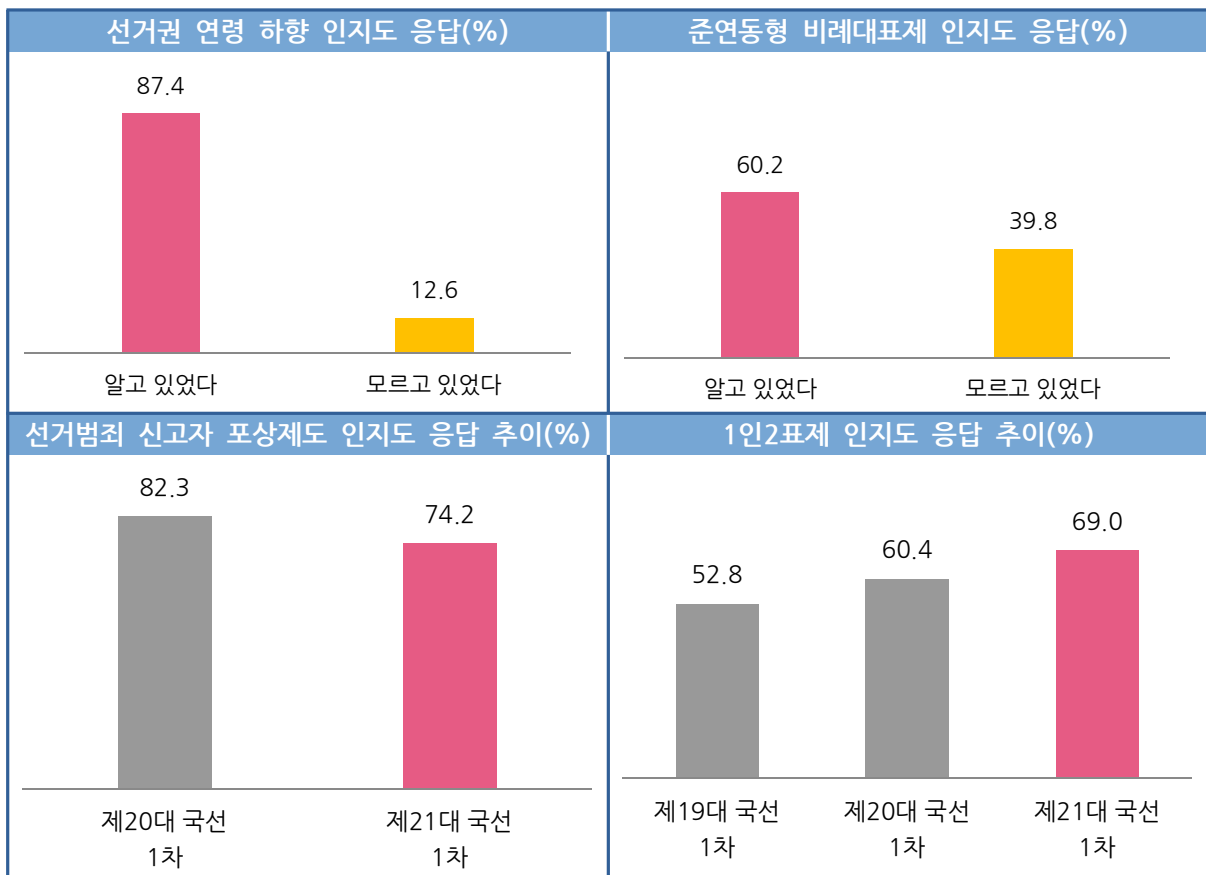
4. 선거 공명도 평가

- ▶ 21대 국회의원 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49.8%
 - 직전 국선보다 공명성 평가 높아짐, 40대 이하의 긍정 평가 많음
- ▶ 공명성 해치는 요소로 '언론의 불공정 보도',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언급 많아



5.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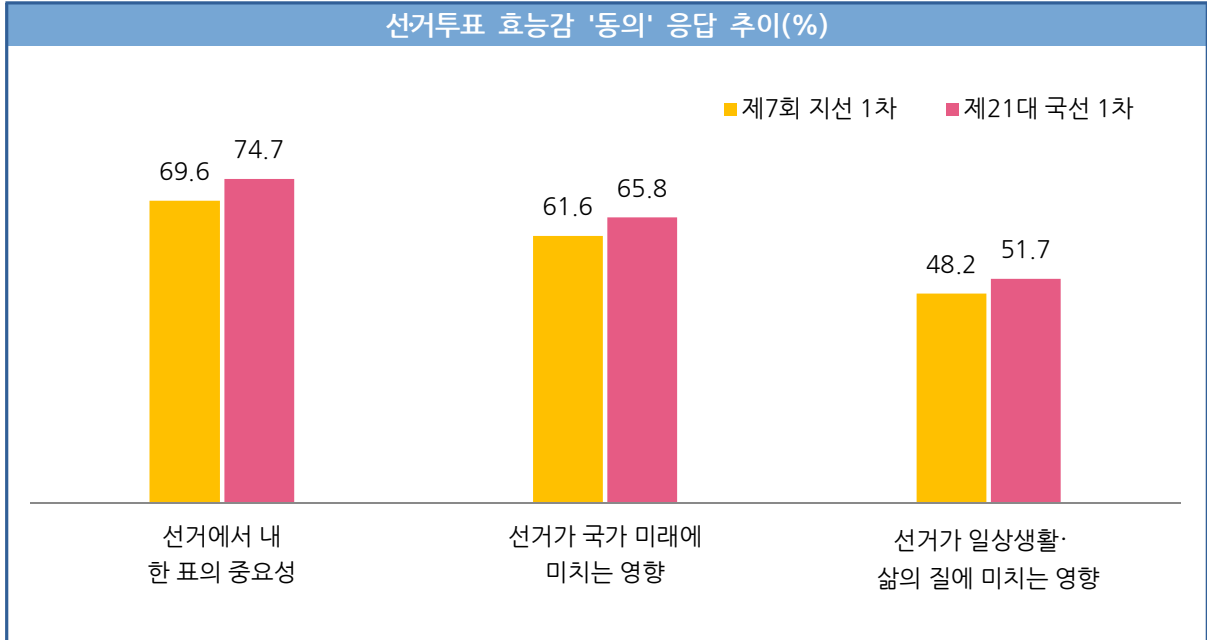
- ▶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인지도 87.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알고 있다' 60.2%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과태료 부과 제도 인지도 하락, 1인 2표제 인지도는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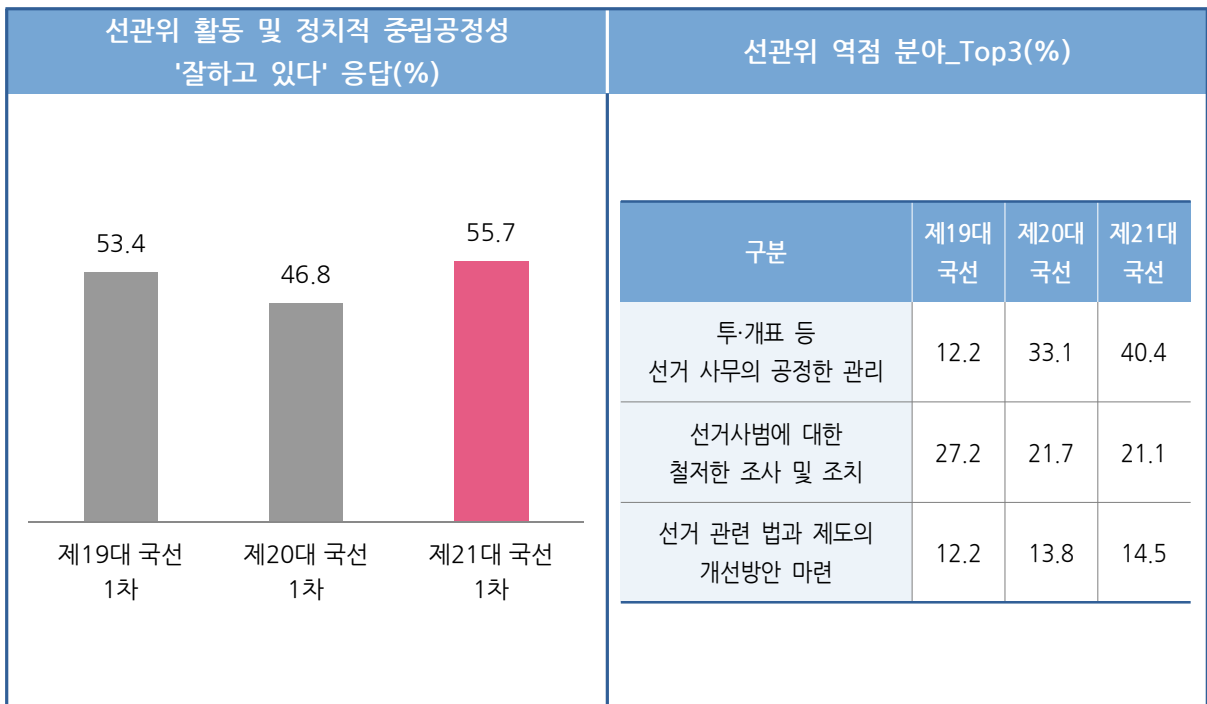
6. 투표 효능감

- ▶ '선거에서 내 한 표가 결과에 영향줌' 74.7%, '선거로 국가 미래 달라짐' 65.8%, '선거로 생활과 삶의 질 달라짐' 51.7% 등 선거 효능감 응답 2년 전 지방선거 대비 증가



7. 선거관리위원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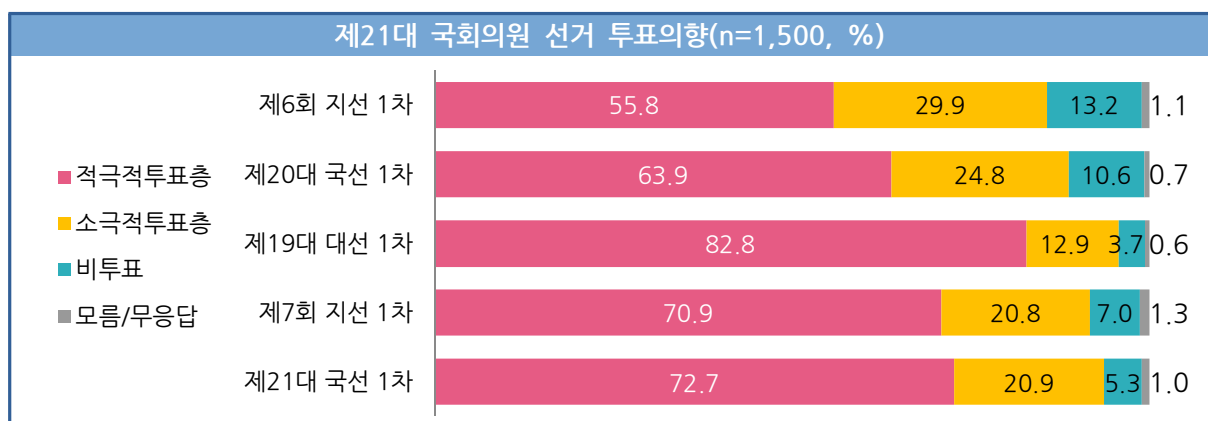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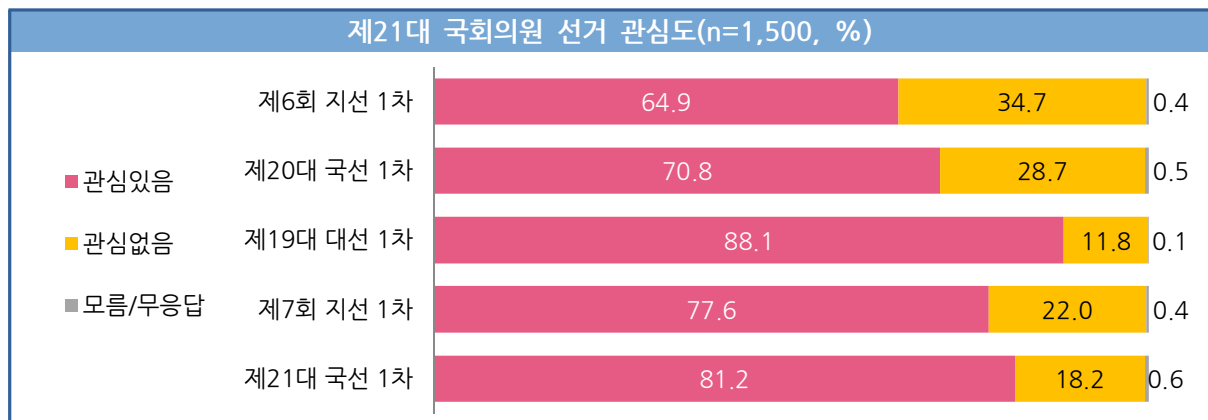
- ▶ 선관위 '활동·정치적 중립성 유지·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 55.7%로 19·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증가
- ▶ '투·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에 역점 두어야 한다'(40.4%) 꾸준히 증가



II 조사 결과 세부 요약

1.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의향

- ▶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81.2%)와 적극 투표 의향(72.7%), 직전 국선/지선 대비 상승
- 20대 국선과 비교해 40대의 상승폭 큰 반면, 18세 포함된 29세 이하의 관심도와 적극 투표 의향은 직전 선거 수준 유지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질문 결과, '매우 관심 있다' 48.8%, '약간 관심 있다' 32.4% 등 유권자의 81.2%가 관심을 표명,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72.7%로 조사됨. 관심도와 투표 의향 모두 직전 대선보다는 낮았으나, 직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보다는 높아짐.
- 선거 관심도와 투표 의향 모두에서 40대의 증가폭이 타 세대보다 큼. 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투표권이 주어진 18세를 포함한 29세 이하 연령층의 관심도와 투표의향은 직전 국회의원/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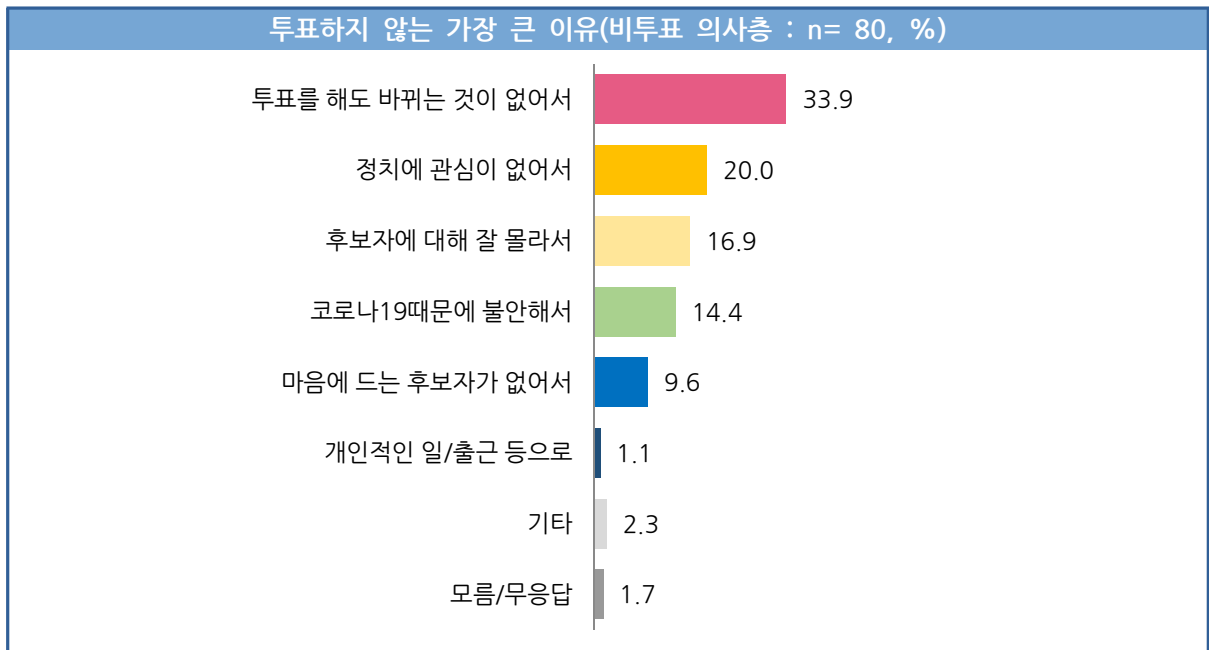


연령별(%)	선거 관심도					적극 투표 의향				
	제6회 지선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제7회 지선	제21대 국선	제6회 지선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제7회 지선	제21대 국선
전체	64.9	70.8	88.1	77.6	81.2	55.8	63.9	82.8	70.9	72.7
(18)19~29세	56.5	63.3	84.5	65.7	64.3	43.9	55.4	84.2	54.3	52.8
30대	58.2	70.5	89.0	78.5	83.3	45.2	59.6	80.9	75.7	71.3
40대	64.4	70.6	90.9	83.0	87.6	54.3	63.2	81.7	71.0	77.0
50대	67.5	73.5	88.6	78.6	82.7	58.6	65.4	82.7	72.7	73.8
60대	76.0	74.4	89.8	81.0	88.1	74.7	72.8	84.7	75.6	83.8
70세이상	76.0	74.4	83.9	78.7	82.9	74.7	72.8	84.0	80.0	82.5



2. 투표 의향 없는 이유

- ▶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33.9%) 투표 안한다는 응답 꾸준히 감소
-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증가, ‘코로나19로 불안해서’도 투표 불참 이유
- 투표 의향이 없는 응답자(N=80)는 그 이유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지적(33.9%)이 가장 많았으나,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52.9%) 이후 꾸준히 감소함. 직전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증가했는데(7.9%→20.0%),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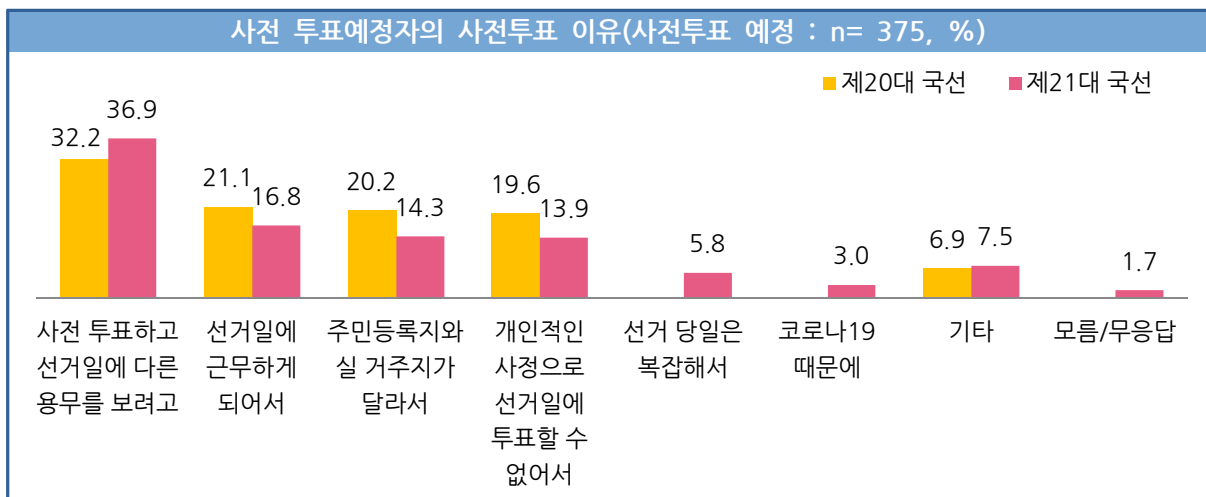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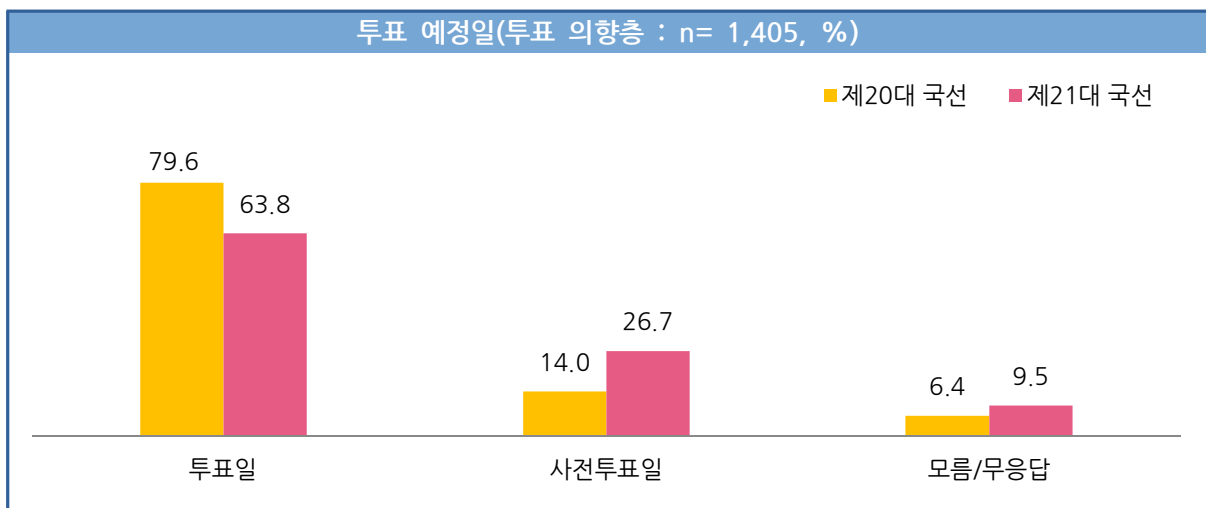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	제6회 지선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제7회 지선	제21대 국선
	(n=198)	(n=160)	(n=55)	(n=105)	(n=80)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50.3	52.9	40.4	34.8	33.9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6.0	7.9	1.7	21.7	20.0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13.6	15.5	15.5	18.8	16.9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	-	-	-	14.4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4.8	7.8	28.4	13.6	9.6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11.3	9.3	12.4	9.5	1.1
기타	2.3	6.6	1.6	0.8	2.3
모름/무응답	1.7	-	-	0.8	1.7

3. 투표 예정일 / 사전 투표 의향 이유

▶ 사전 투표 의향, 20대 총선 대비 12.7%포인트 증가

- 사전 투표 의향은 18~29세(36.0%)와 30대(32.2%)가 40~60대(25% 내외)보다 높음
- '사전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36.9%) 지난 총선 이어 주된 사전 투표 이유
- 투표의향자(N=1,405)의 63.8%는 '4월 15일'에 투표하겠다, 26.7%는 '4월 10일 또는 11일'에 투표하겠다고 해 선거일 투표의향자가 더 많음. 2016년 20대 총선에 이어 총선에서는 두 번째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참여의향은 4년 전 14.0%보다 12.7%포인트 높아짐. 20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12.2%로 전체 투표자의 21.0%를 차지했음.
-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8~29세에서 36.0%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에서도 32.2%로 40~60대(25% 내외)와 차이를 보임. 여자(22.4%)보다 남자(31.1%)의 사전투표일 투표의향이 높음.
- 사전투표 의향자의 그 이유로는 '사전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가 36.9%로 20대 총선(32.2%)에 이어 가장 많이 응답됨. 그 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어서'(16.8%),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14.3%),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13.9%)는 모두 지난 총선 당시(각 20% 내외)보다 응답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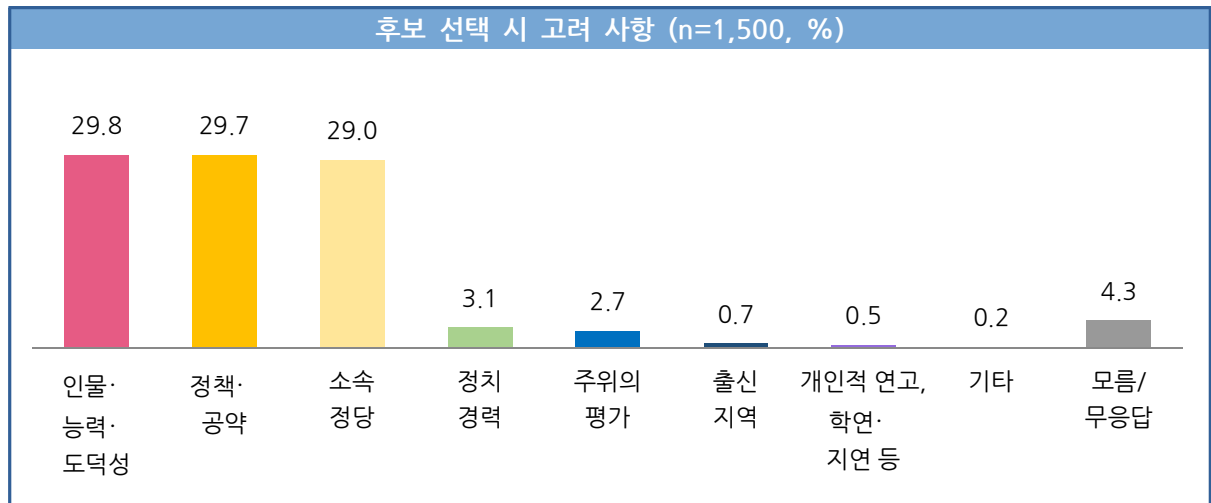




4.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사항

▶ 지역구 투표 후보 선택 시 ‘인물·능력·도덕성’ ‘정책·공약’ ‘소속 정당’ 고려 29%대로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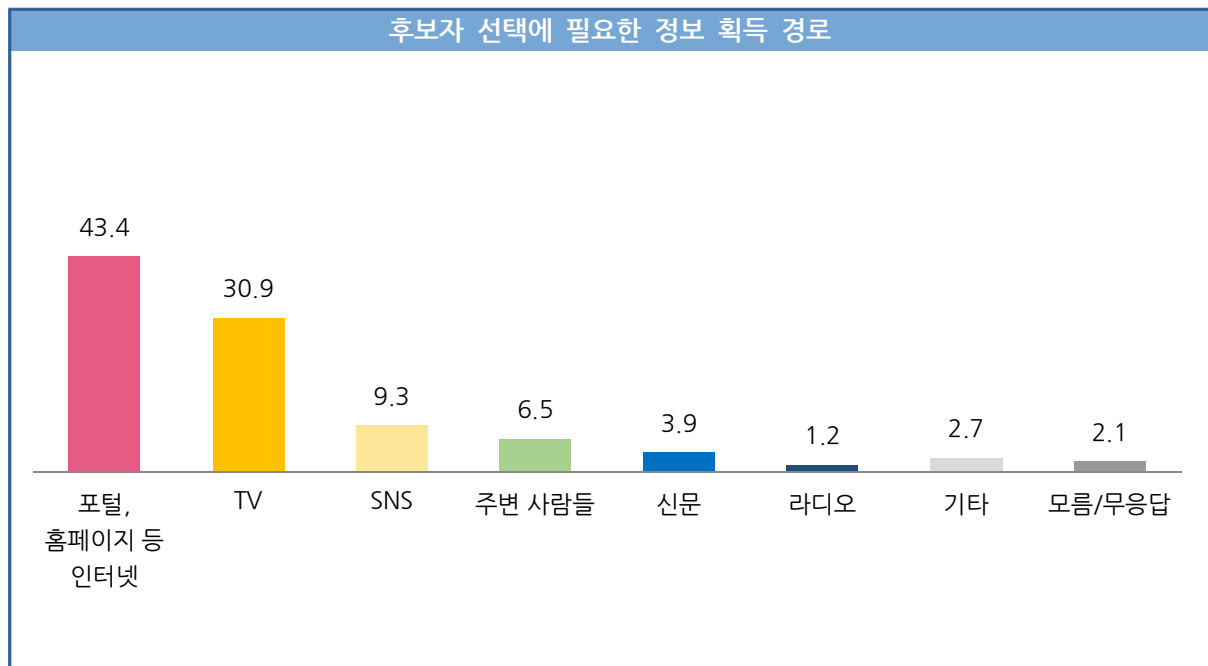
- 이전 국선 대비 ‘소속 정당’ 고려 증가, ‘인물’ 고려 감소
- 30대 이하는 ‘정책·공약’ 40대 이상은 ‘인물’과 ‘소속 정당’ 고려 많아
- 이전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인물·능력·도덕성’ 고려는 줄은 반면, ‘소속 정당’은 증가함(19대 13.8% → 20대 16.0% → 21대 29.0%).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정책·공약’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저연령일수록 늘어나 18~29세의 48.2%, 30대의 43.5%가 타 요인보다 높게 고려함.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정책·공약’보다 ‘인물’과 ‘소속 정당’ 요인 고려가 많아 세대별 후보 선택 영향 요인의 차이 보임.



후보 선택 기준(%)	인물·능력·도덕성	정책·공약	소속 정당	정치 경력	주위의 평가	출신 지역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	기타	모름/무응답
제19대 국선1차	30.8	34.0	13.8	4.4	7.6	0.8	1.2	1.7	5.7
제20대 국선1차	35.1	27.3	16.0	5.8	4.0	1.6	1.8	4.4	4.0
제21대 국선 1차	29.8	29.7	29.0	3.1	2.7	0.7	0.5	0.2	4.3

5.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경로

- ▶ 후보자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로 '인터넷'(43.4%)이 'TV'(30.9%)보다 많아
- 인터넷 통한 정보 획득은 40대 이하에서 60% 내외로 많아,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응답 감소
-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포털, 홈페이지 등 인터넷'이 43.4%, 'TV' 30.9%, 'SNS' 9.3% 순으로 20대 국선 대비 1-2순위가 바뀜. '인터넷'을 통해 정보 얻는다는 응답은 40대 이하에서 60% 내외로 두드러짐. 50대는 인터넷과 TV가 팽팽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TV(59.7%)를 통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음.
- TV, 신문, 라디오 등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은 20대 국선 44.4%에서 이번 조사 36.0%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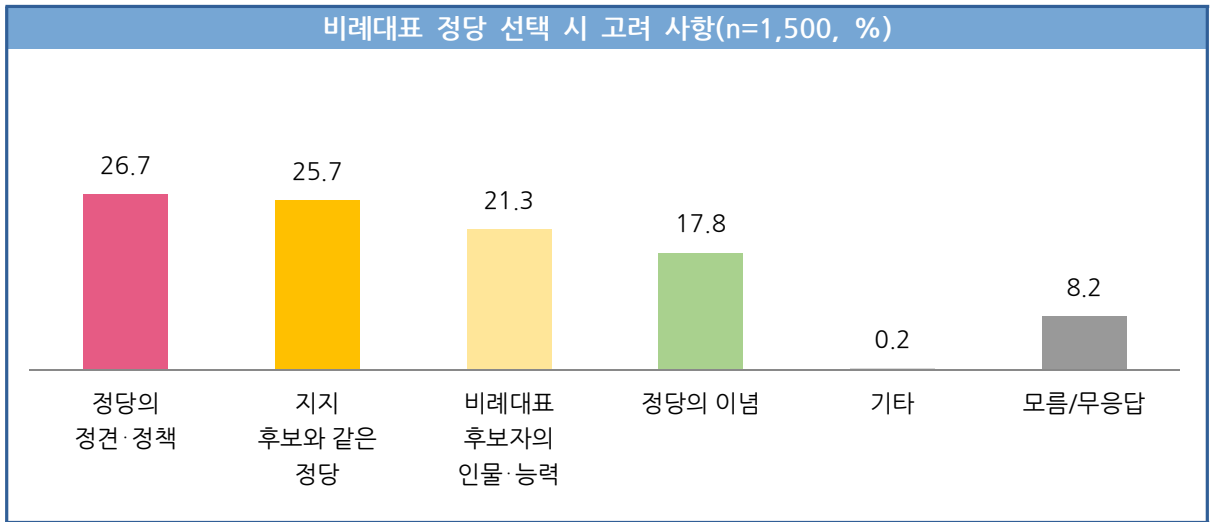
정보 획득 경로(%)	포털, 홈페이지 등 인터넷	TV	SNS	주변 사람들	신문	라디오	기타	모름/무응답
제20대 국선 1차	34.6	30.5	7.5	8.7	8.5	1.3	7.3	1.5
제21대 국선 1차	43.4	30.9	9.3	6.5	3.9	1.2	2.7	2.1



6. 비례대표의원 선거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

▶ 비례대표의원 정당 선택 시 고려요인 다양하게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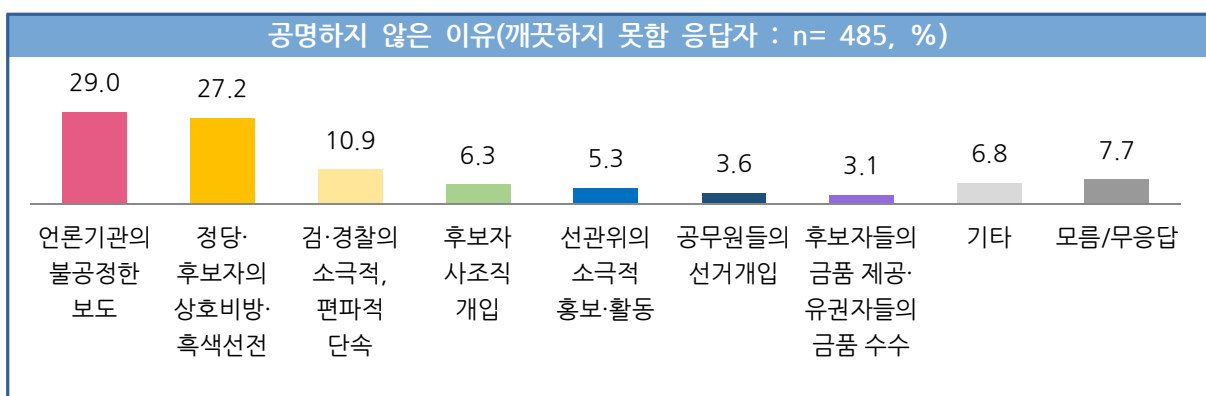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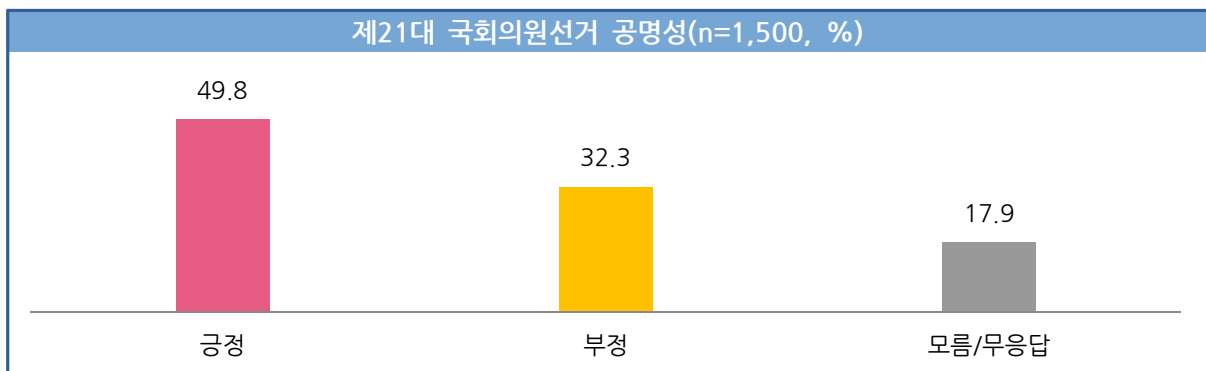
- 저연령일수록 정당의 '정견/정책', 고연령일수록 '지지 후보와 같은 정당' 고려 많아
- 비례대표의원을 뽑기 위한 지지 정당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정당의 정견·정책' 26.7%, '지지 후보와 같은 정당' 25.7%,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21.3%, '정당의 이념' 17.8%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루 고려됨. 20대 국선 대비 '비례대표 후보자 고려'는 줄고(27.5%→21.3%), '지지 후보와 같은 정당'은 증가함(17.6%→25.7%). 정당의 '정견·정책'은 저연령일수록 증가해 18~29세의 경우 39.3%에 달함. 반면 '지지 후보와 같은 정당' 고려는 고연령일수록 증가해 60세 이상에서 33%가량으로 고연령 층에서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정당), 비례대표 정당 일치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정당 선택 기준(%)	정당의 정견정책	지지 후보와 같은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정당의 이념	기타	모름/무응답
제20대 국선 1차	23.0	17.6	27.5	15.6	9.3	7.0
제21대 국선 1차	26.7	25.7	21.3	17.8	0.2	8.2

7.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명성 평가 / 공명성 부정 평가 이유

- ▶ 21대 국회의원 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49.8%, '깨끗하지 못하다' 32.3%
- 공명성 평가, 20대 국선보다 좋으나 직전 지방선거와 대선보다는 좋지 않음, 40대 이하의 긍정 평가 상대적으로 많아
- ▶ 공명성 해치는 요소는 '불공정 보도'(29.0%),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27.2%)
- 지난 국선 대비 '불공정 보도'는 증가, '상호비방·흑색선전'은 감소
-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한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7.6%, '깨끗하게 치러지는 편이다' 42.2% 등 유권자의 절반 정도(49.8%)가 공명성에 대해 긍정평가해 부정평가(32.3%)보다 17.5%포인트 더 많음. 공명성 긍정평가는 20대 국선(33.5%)보다 높아진 것이나, 2~3년 전 실시된 지방선거와 대선의 5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공명성 긍정평가는 40대 이하에서 55% 내외로 많았던 반면 50대 48.4%, 60대 44.9%, 70세 이상 38.6%로 고연령일수록 감소함.
-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N=485)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29.0%)와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27.2%)에 응답 집중됨. 20대 국선과 비교해 '불공정한 보도' 응답이 9.1%p 증가한 반면, '상호비방·흑색선전'은 7.2%p 감소함.



공명성 평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공명하지 않은 이유_Top 3		
	공명함	공명하지 못함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검·경찰의 소극적, 편파적 단속
제6회 지선	49.3	34.2	24.8	30.9	10.7
제20대 국선	33.5	53.5	19.9	34.4	5.9
제19대 대선	54.2	34.9	31.5	39.3	7.6
제7회 지선	55.4	26.8	20.4	37.8	11.2
제21대 국선	49.8	32.3	29.0	27.2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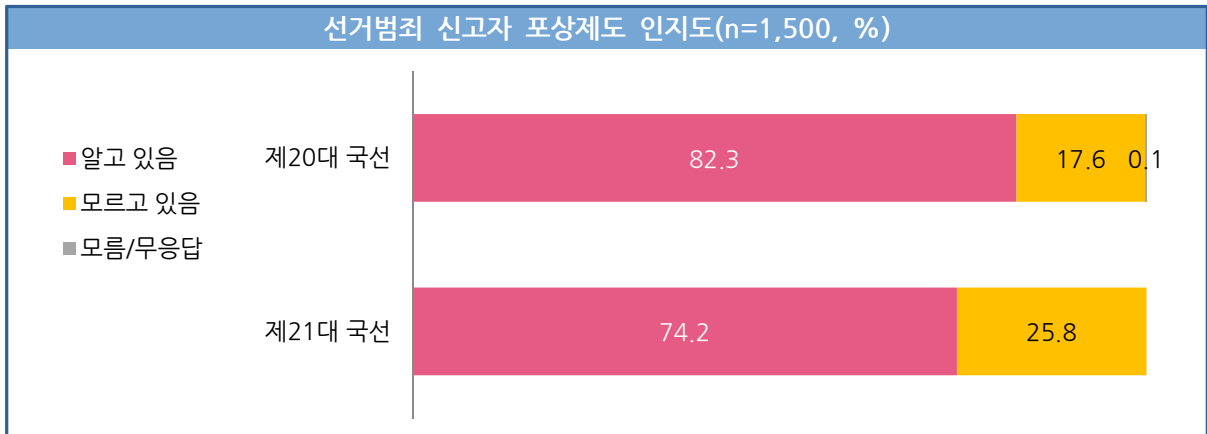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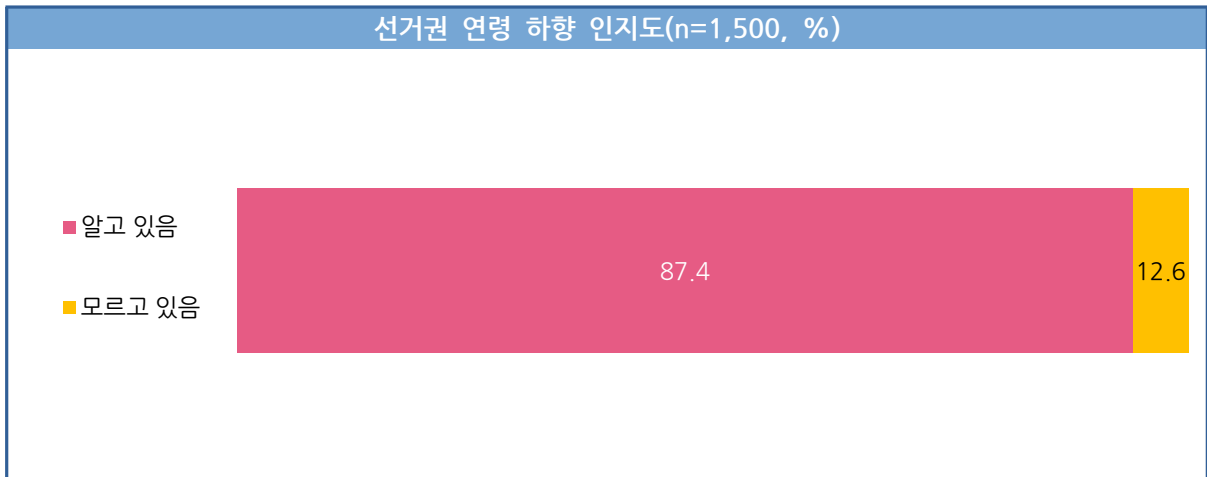


8.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 ▶ 선거권 연령 하향 '알고 있다' 87.4%
-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과태료 부과 인지도(74.2%)는 하락

- 18~29세의 선거권 연령 하향 인지도 타 세대 대비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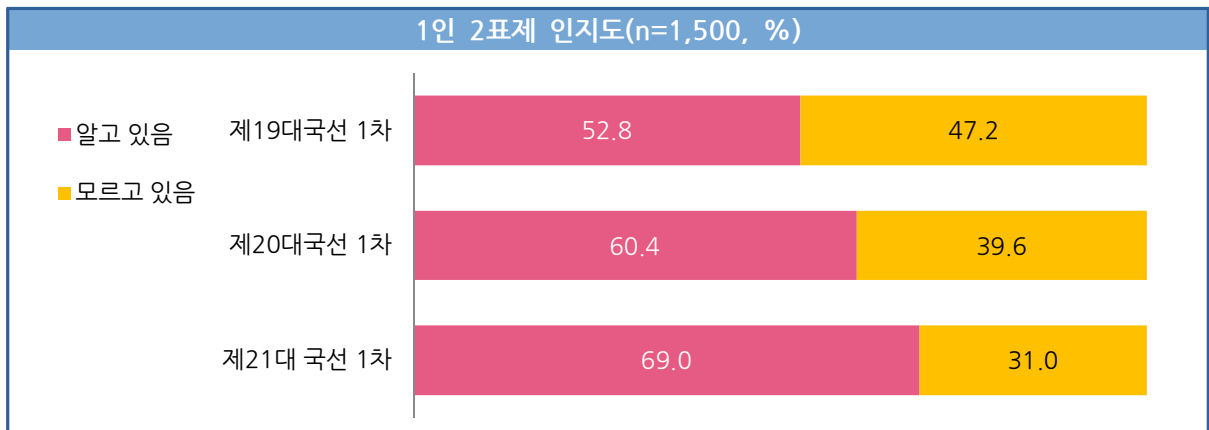
-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낮추어진 것에 대한 인지도는 87.4%에 달함. 선거권 연령 하향 인지도는 60대에서 96.6%로 가장 높았으며, 50세 이상에서 모두 90% 이상을 기록한 반면, 당사자가 포함된 18~29세에서는 75.1%로 타 세대보다 낮음.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 제공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의 인지도는 74.2%로 지난 국선 당시(82.3%)보다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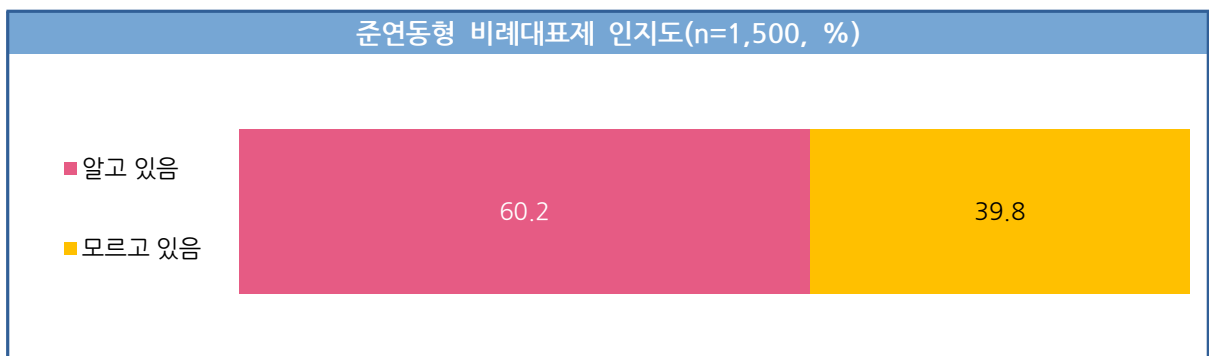
- ▶ 1인 2표제 인지도 69.0%, 증가세 이어가나 타 제도 대비 인지도 낮음
-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지도 60.2%로 각 제도 중 가장 낮은 인지도

- 18~29세는 두 제도 모두 비인지자가 더 많아

- 지역구 후보에 한 표, 비례대표 정당에 한 표 투표하는 1인 2표제에 대한 인지도는 69.0%로 증가세가 이어짐(19대 52.8% → 20대 60.4% → 21대 69.0%). 1인 2표제 인지도는 50/60대에서 80% 내외로 높았으나, 18~29세는 인지자(47.2%)보다 비인지자(52.8%)가 더 많음.
- 21대 국선에서 처음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지도는 60.2%로 4개의 선거 관련 제도 인지도 중 가장 낮은 수치 보임. 1인 2표제와 마찬가지로 50/60대의 인지도가 75% 내외로 높았던 반면 18~29세의 인지도는 25.6%에 불과해, 이들의 낮은 선거 관심도를 반영함.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인지자(N=903)에게 구체적인 의석 배분 방식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잘 알고 있다' 19.7%, '들어본 적은 있다' 58.0% 등 77.6%의 인지도를 보임. 이는 전체 응답자(N=1,500) 기준 46.7%로 우리나라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투표의향별 1인 2표제 인지도(%)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적극적 투표층	78.0	22.0
소극적 투표층	49.3	50.7
비투표	31.3	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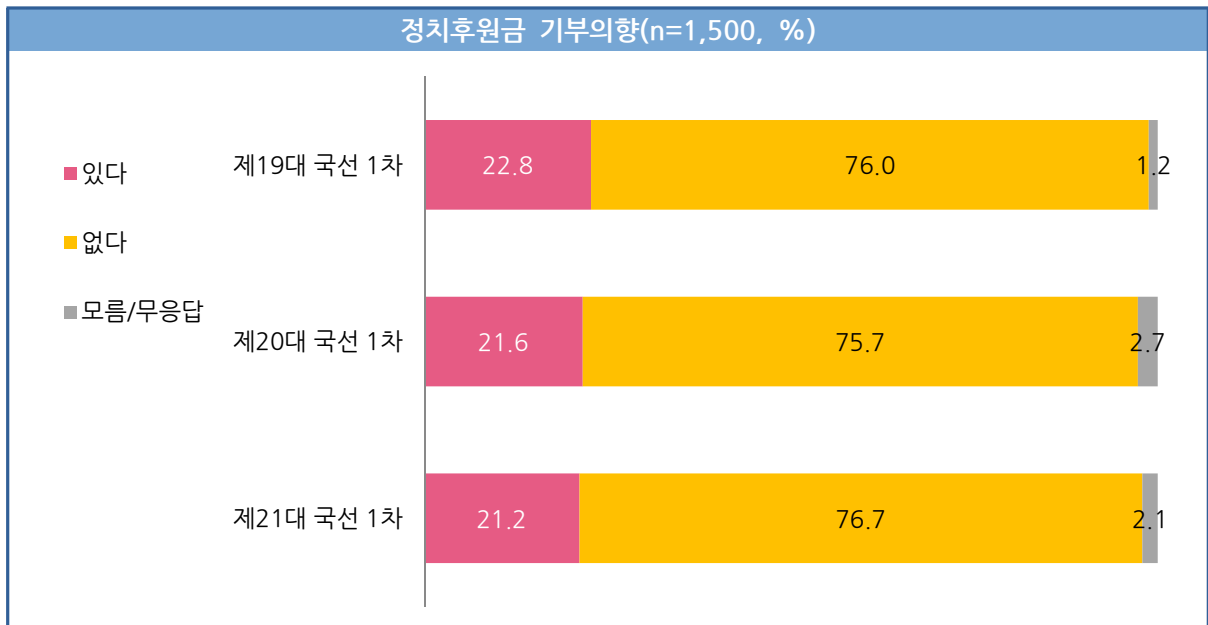


9. 정치 후원금 기부 의향

▶ 정치 후원금 기부 의향 21.2%, 19~21대 국선 비슷한 수치

- 18~29세의 기부 의향(9.3%) 특히 낮아

·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에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 21.2%, '없다' 76.7%로 19대 이후 세 번의 조사 결과 모두 기부 의향자는 21~22% 수준에 머물. 40/50대의 기부 의향이 29%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앞서 각종 선거 제도 인지도 및 선거 관심도, 투표 참여 의향 낮았던 18~29세는 기부 의향 또한 9.3%로 각 세대 중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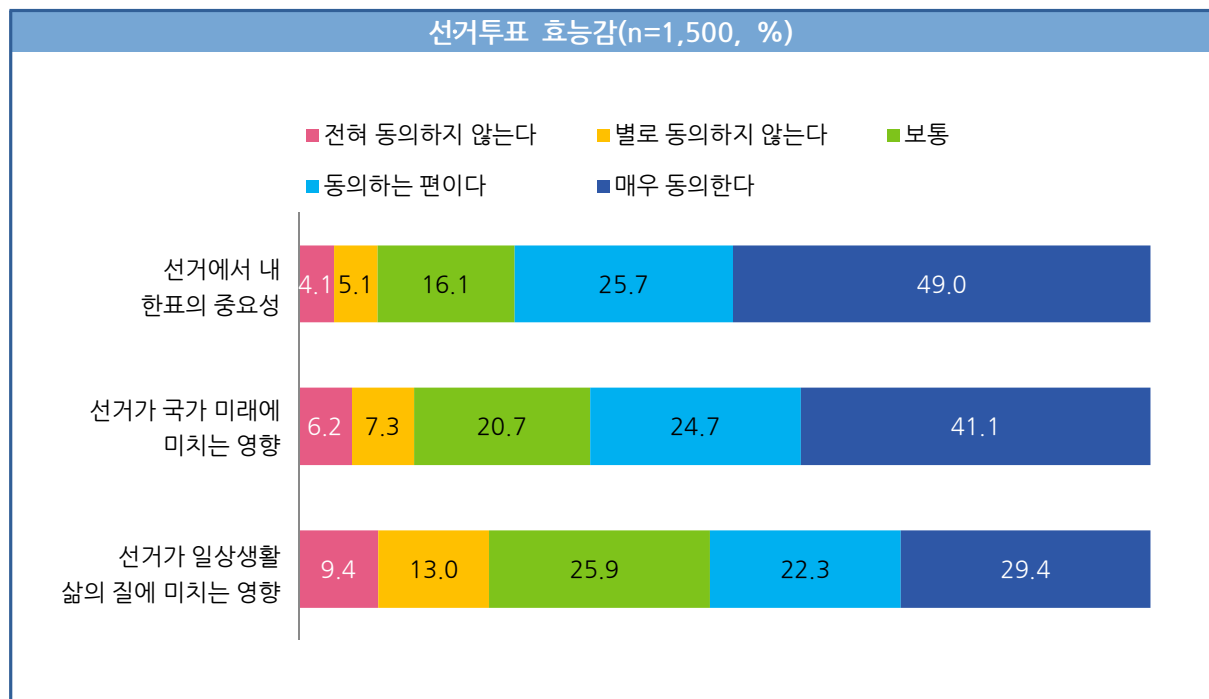


10. 투표 효능감

▶ ‘선거에서 내 한 표가 결과에 영향 줌’ 74.7% 등 투표 효능감 동의자가 더 많음

-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세 질문 모두에서 직전 지방선거 대비 증가, 18~29세의 투표 효능감 동의율을 낮아

· 세 개 질문으로 알아본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74.7%, ‘선거를 통해 국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65.8%,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51.7% 등 세 측면 모두 지방선거 대비 증가하며 동의자가 더 많음. 동의율은 직전 대선 당시 수준임. ‘내 한 표가 결과에 영향 줌’은 60대(82.4%), 선거를 통해 ‘국가 미래 달라짐’(74.3%)과 ‘나의 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짐’(63.3%)은 40대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18~29세의 투표 효능감 동의율은 타 세대대비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투표) 교육·홍보에 관심이 요구됨.



거투표 효능감 '동의' (%)	제19대 대선	제7회 지선	제21대 국선	증감(%p)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75.8	69.6	74.7	+5.1
선거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64.9	61.6	65.8	+4.2
선거가 일상생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44.6	48.2	51.7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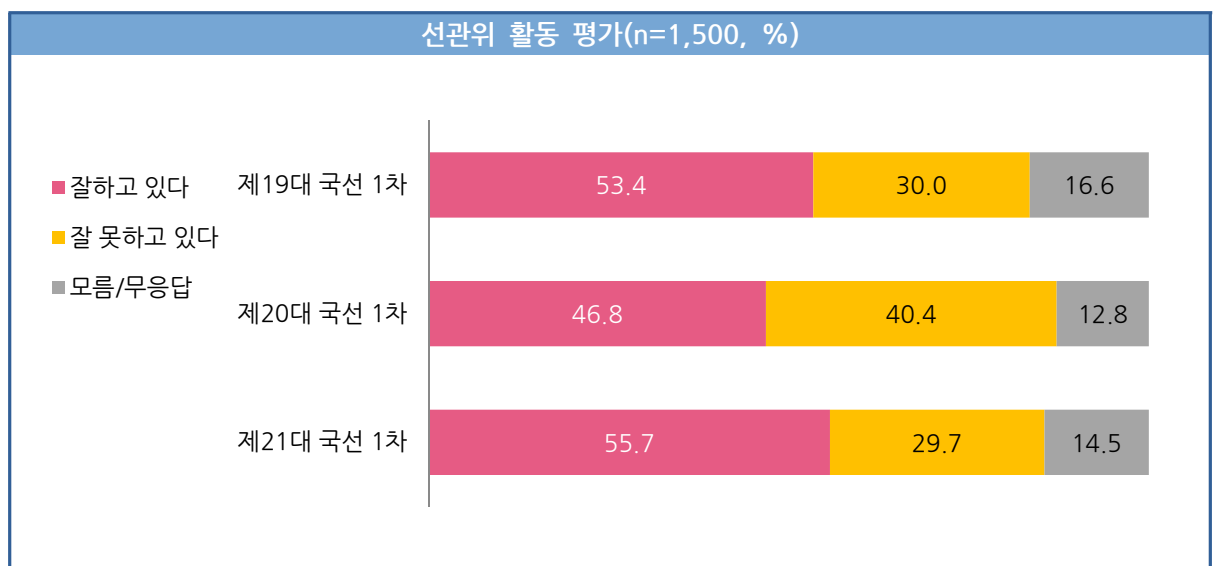


11.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

▶ 선관위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긍정평가 55.7%

- 이전 국회의원 선거 대비 긍정평가 증가, 저연령일수록 긍정평가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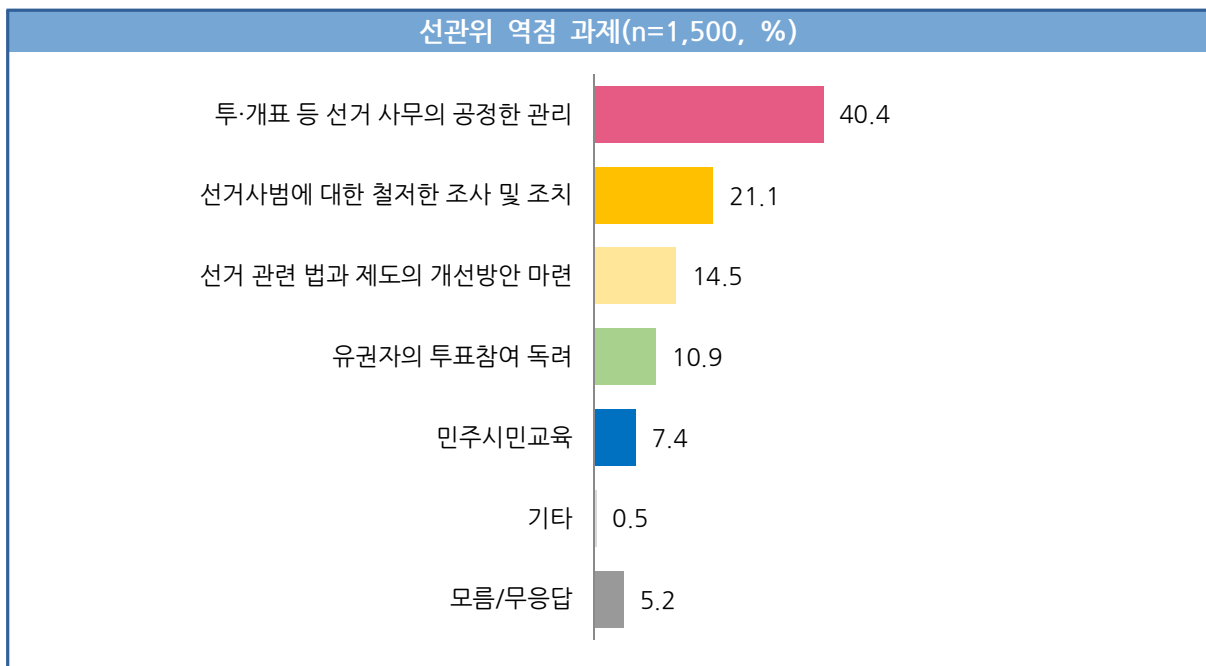
·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6.8%, ‘잘하고 있는 편이다’ 49.0% 등 긍정평가가 55.7%로 부정평가(29.7%)보다 26.0%포인트 더 많음. 선관위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전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늘었으며 특히 20대 국선(46.8%)대비 8.9%포인트 증가함. 긍정평가는 저연령일수록 증가함(70세 이상 39.5%, 18~29세 66.0%).



선관위 활동 평가(%)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전체	53.4	30.0	16.6
선거 관심 있는 층	57.4	29.4	13.2
선거 관심 없는 층	49.9	32.2	17.9

12. 선거관리위원회 역점 과제

- ▶ 선관위는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에 역점 두어야 한다’(40.4%) 꾸준히 증가
 - 모든 세대/계층에서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1순위로 꼽아
 -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21.1%,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14.5%,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 10.9% 순의 응답을 보임. 19대 국선 당시 3순위였던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지적은 이후 증가해 20대 국선 시부터 1순위로 응답됨(19대 12.2% → 20대 33.1% → 21대 40.4%). 반면 19대 국선 대비 ‘선거 사범 조사/조치’와 ‘투표 참여 독려’는 응답 감소함.



선관위 역점 과제(%)	제19대 국선	제20대 국선	제21대 국선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12.2	33.1	40.4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27.2	21.7	21.1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12.2	13.8	14.5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28.5	11.5	10.9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홍보	-	9.2	-
주권의식 함양 위한 민주시민 교육	-	-	7.4
기타	0.4	4.7	0.5
모름/무응답	7.4	6.0	5.2